광주·전남 기업 12월 경기 기대감 '급랭'

한은 광주전남본부, 기업심리지수 발표

11월 체감경기 제조업↑ vs 비제조업↓
다음달 제조업 전망 6p·신규수주 15p↓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12월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11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체감경기는 제조업이 소폭 상승하고 비제조업은 하락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다음 달인 12월에 대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자금사정 덕에 '선방'…전망은 먹구름

제조업의 11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80.3으로 전월 대비 1.9p 상승했다. 이는 CBSI의 구성지표 중 하나인 자금사정 BSI(68)가 전월 대비 6p 상승하며 호전된 영향이 컸다.

그러나 다음 달인 12월 전망은 크게 악화됐다. 12월 전망 CBSI는 79.0으로 전월 대비 5.9p나 급락하며 경기 회복 기대가 급격히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신규수주 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15p나 떨어져 연말연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기업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여전히 내수부진(23.7%)과 경쟁심화(16.1%)를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비제조업, 업황 악화 지속…내수부진 30% 넘어

비제조업은 제조업과 달리 체감경기가 악화됐다. 11월 CBSI는 92.5로 전월 대비 3.4p 하락했다. 이는 업황 BSI(66)가 전월 대비 6p 하락하고 채산성 BSI(74) 역시 3p 하락하는 등 주요 지표가 동반 부진한 결과다.

특히 지역 비제조업 기업 셋 중 하나는 여전히 내수부진(30.2%)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12월 전망 CBSI는 92.0으로 전월 대비 0.5p 소폭 상승했으나, 장기평균치인 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업종 모두 CBSI가 장기평균치(100)를 밑돌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기업 경기가 장기간 비관적인 국면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조업의 12월 전망 급락은 수요 위축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연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채만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어촌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취약계층 가정과 복지시설에 총 2천㎏의 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公, 노사합동 '사랑의 김치 나눔'

김치 2천kg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전날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과 취약계층 가정과 복지시설에 총 2천㎏의 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사가 올 한 해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다. 공사는 올해 1분기부터 분기별로 김치 나눔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3분기까지 총 6천㎏의 김치를 지원했다.

이날 김치 나눔 현장에는 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 집행부 40여명이 함께했으며 참여자들은 김장부터 포장까지 직접 수작업을 통해 온정 나누기에 뜻을 모았다. 이날 마련된 김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은식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번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경총 '2026 노사민정 통합 신년인사회'

1월2일 DJ센터서 경제단체 합동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와 내년 1월 2일 오전 6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2026년 노사민정 통합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일정으로는 오전 6시30분부터 7시까지 30분간 조찬으로 희망 떡국 나눔 행사 후 7시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기로 10개 경제단체가 합의했다.

오전 7시10분부터는 신년사와 주요 기관장의 덕담과 건배 제의가 진행되며, 오전 8시에서 8시 10분까지 기념 촬영 후 끝날 예정이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광주·전남 지역 10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해 새해 인사와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행사다.

매년 지역의 20여 개의 협회 단체·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2026년에는 광주경총과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각 기관의 예산 절감과 경제계 화합의 의미를 부여했다. 2026년 합동 신년인사회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초 행사로 광주·전남 각 단체 회원사 및 기관장, 정치계 등 인사들이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채만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하나!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둘! 취약한 지붕재 위 덮개 또는 발판 설치
셋! 덮개 또는 발판 설치 곤란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은행 "지역 청소년의 꿈 지킨다"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13·14호' 선정

어려운 환경 속 우수 청소년 인재 2명 발굴

광주은행은 지난 25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변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13호·14호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이날 선정식에서는 두 명의 청소년과 가족을 본점으로 초청해 각 300만원의 후원금과 학업·재능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앞으로의 진로와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보이는 지역 중·고교생을 발굴해 대학 입학 전까지 장기 지원하는 광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총 14명의 꿈나무가 선발됐으며, 이들은 학업·예체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후배들에게 멘토링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13호 꿈나무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프로골퍼를 목표로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하며 가능성을 입증한 예체능 분야 유망주다. 14호 꿈나무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청소년으로, 꾸준한 학업 성취도와 우수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인재다.

광주은행은 두 학생에게 2025년부터 대학 입학 시점까지 학습지원금 및 예체능 지원금을 매년 제공할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

기준금리 年 2.5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이는 금통위가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 연속 똑같은 결정을 내린 셈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환율과 금융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0원대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극심해 추가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재반등 조짐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 불안정 리스크도 섣부른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음 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전통과 현재의 만남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의 초대,
1913송정역시장으로 놀러오세요!

112년의 시간 그리고...
1913년에 이곳에서 처음 '매일 송정역전시장' 이 시작되었습니다.
112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바꿨고,
누적된 시간이 많은 만큼, 송정역시장은 상인들에겐 삶의 터전이고
방문객들에겐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100년간 이곳을 지켜온 36개의 기존 상점들의 간판 글씨,
가게 형태, 가게 색상 중 하나는 꼭 남겨두었습니다.
옛 정취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고,
간판의 디자인은 상인들의 추억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1913송정역시장]은 바꾸기 위한 변화가 아닌,
지키기 위한 변화로 탄생한 시장으로
광주송정 KTX 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광주의 필수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휴무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자율 휴무- 매월 넷째주 월요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광산구 광고문의 : 062)650-2099